

“현역 캠프, 두 후보 협공에 공화 지지반대로 고전”

레지스터, 강석희 시장 출마한 연방 45지구 조명

**민주 강시장·공화 웹후보 도전
OC 공화당선 캠프 공식 반대
정치자금에선 두 후보 압도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류 일간지인 레지스터가 강석희 어바인 시장이 출마한 연방 45지구를 조명했다.

9일 OC레지스터는 ‘양쪽에서 공격받는 캠프’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며 공화당 소속인 현역 캠프 의원이 민주당 소속 강 시장은 물론 같은 공화당인 존 웹 후보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웹 후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고수하는 보수적인 가치를 현연인 캠프 의원이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그 역할을 대신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캠프 의원의 경우 군대의 동성애 예방책 중 하나인 ‘돈 에스 크, 돈 텔(don't Ask, don't tell)’ 규정을 없애는 것을 지지한 이유로 보수적인 가치를 저버렸다고 OC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OC공화당 중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소집해 투표한 결과 41대 22로 캠프 의원에 대한 지지 반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캠프 의원 측은 “OC 공화당 중앙위원회는 캠프 의원이 출마한 45지구의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공화당 관계자 일부는 캠프 의원의 지지세력 중 일부가 이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캠프 의원이 공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강 시장과 웹 후보 역시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레지스터는 전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 시장의 경우 45지구의 중심지역인 어바인에서 정치생활을 하고 지지기반을 두고 있지만 전체 지역구에서 공화당 유권자가 45%인 반면 민주당 유권자는 28%에 불과하다.

지난 4월 공개된 정치자금 모금 기록에서도 현역 캠프 의원과 다른 두 후보 간의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캠프 의원은 현재 110만 달러를 손에 쥐고 있는 반면 강 시장은 19만 4700달러를 갖고 있으며 웹 후보는 220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후보는 “선거자금을 모으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선거 전에 10번에 가까운



강석희



캠벌



존 웹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금이 부족한 반면 봉사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지스터는 또 강 시장 역시 직접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유세 방법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가가호호 방문하며 유권자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유권자들은 정치적인 놀음에 지쳐있으며 커뮤니티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캠프 의원은 “현재까지 선거운동은 부드럽게 잘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과 연결되고 있으며 당선되어 45지구 주민들을 위해 뛰고 싶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45지구는 어바인을 포함, 터스틴, 애너하임, 빌라파크, 오렌지레이크포리스트, 비션비에이호 등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11월 결선에 나갈 2명을 뽑는 예비선거는 오는 6월5일에 실시된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